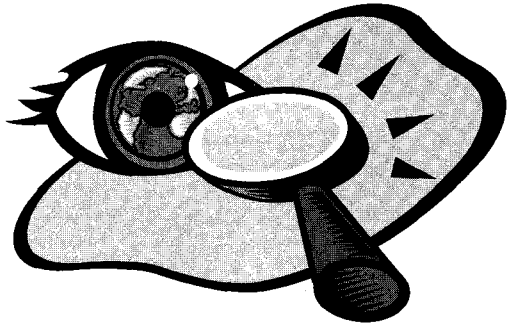


그것과 그들은 누구인가



발명에도 시기가 있다

자 신의 발명품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인기를 끄는 성공작이 되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중의 심리에 편승하여 발명을 하도록 하라.

발명이 성공하려면 현재보다 딱 한발만 앞서야한다. 뒤처지는것은 물론이고 너무 앞서는 것도 대중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다.

대중은 유행을 따르는 심리도 가지고 있지만,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심리를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유전의 법칙'의 발견자 멘델. 그는 유전학에 있어 성전과도 같은 법칙을 정리해 냈지만 너무 시대를 앞지른 탓에 살아 생전에는 어떠한 영예도 얻지 못했다. 그의 유전 법칙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은 뒤에도 무려 30년이 흐른 후였다.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드프리스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얻은 멘델의 팜플렛을 통해 유전의 법칙을 알게 됐고, 이것을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결국 최초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이르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당하고, 발견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그 발견 시기가 너무 적절하여 오히려 명성을 얻게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발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디오에서 '자동선국'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기능이 있다. 보통의 라디오는 바리콘을 돌려가며 방송을 선택해야 하는 반면 자동선국 장치가 붙은 라디오는 단추만 누르면 MBC, KBS가 저절로 나온다. 지금은 이런 장치가 있는 라디오가 많이 나오며 대부분 고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발명품은 수년 전에 발명된 것이다. 그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라디오의 소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빛을 보게된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현실을 파악하라. 무엇이 필요 한가를 확실히 꼬집어 내보라. 만약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해(+) 보자

산 수의 가장 기본적 셈이 '더하기(+)' 이듯 발명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더하기(+)' 발명이다. 글자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물건+물건' 과 '방법+방법' 이 전부이다. 그것도 새로운 물건과 방법이 아닌 이미 있는 물건과 방법들을

서로 더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것도 발명이냐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최첨단 기술분야의 발명만이 훌륭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아이디어일지라도 훌륭한 발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더하기 발명' 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연필+지우개= 지우개달린 연필' 은 미국의 이름없는 가난한 화가를 세계적인 발명가로 변신시켜 놓았다.

좀 오래된 영화를 보면 전화기의 수화기와 송화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분리된것을 통합하여 매우 편리하게 송수화기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그 기능이 더해져 한층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냉동 겸용 냉장고, 보온 겸용 밥솥, 시계겸용 라디오, 장식 겸용 전등, 목걸이 겸용 시계, 망치 겸용 장도리, 만년필 겸용 라디오, 책장 겸용 책상, 필터 추가 담배, 상의와 하의를 더한 원피스 드레스 등 두가지 물건을 더하여 새로운 기능의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물건은 참으로 많다.

최근에는 두가지 뿐만이 아니라 세가지, 네가지 등 여러개의 기능을 더한 발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시계에 전자계산기의 기능과 간단한 오락기능을 겸한 것과 텔레비전에 비디오 기능은 물론 노래방 기능까지 겸한 것, 삼푸에 린스의 효과와 트리트먼트 효과, 염색, 비듬 제거 등의 그야말로 복합적인 샴푸들이 경쟁하듯이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더하기발명' 은 더욱 발전될 추세이다.

자, 주위를 둘러보자.

아직도 '더하기발명' 의 대상이 될 물건은 얼마든지 있다.

'저 물건과 저물건의 기능을 합해보면 어떨까?'

이 물음은 당신이 발명가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